

전기(감전) 사고발생 시 국민행동요령

일반적인 전기사고 예방은

-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(전류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것)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맙시다.
-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(접지)해야 합니다.
-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,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합니다.
-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맙시다.
- 수동 개폐기의 퓨즈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정격 퓨즈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.
- 자동개폐기(차단기)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(테스트 버튼을 눌러 차단 되는지)합니다.
- 불량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맙시다.
-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·접속하여 사용하지 맙시다.

침수지역 감전사고 예방은

- 늘어진 전선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맙시다.
-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였을 때는 원인을 제거한 후 사용합니다.
- 가옥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개폐기를 내려두고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.
- 침수된 가옥 수리 시 손상된 전선은 교체하도록 하고 가옥과 배선부분이 완전히 건조된 후 사용합니다.
- 넘어진 전주·가로등 등 파손된 전기시설물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한국전력(국번 없이 123)에 신고합니다.

대피 명령시 전기설비 조치사항

- 폭우로 인한 가옥침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(두꺼비집)를 열어 전기의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.
- 이때 발이 물에 잠겨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발과 손을 말리고 안전기 손잡이를 마른 천으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열거나 고무장갑을 끼셔야 합니다.
-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전기기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시는게 좋습니다.



정전발생시 조치사항

- 정전이 되면 창 밖으로 주변을 확인하여 지역일부만 정전인지,전체적으로 정전인지 확인 후 잠시 기다립니다.
- 전열기, 전기스토브, TV, 전지렌지, 컴퓨터 등의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.
- 침착하게 양초나 랜턴을 켜시고 건전지용 라디오를 켜신 후 뉴스나 재해상황 중계방송을 경청 합니다.
- 한집만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었는지, 안전기(두꺼비집)이 열렸는지 확인 후 스위치와 플러그를 모두 끄거나 빼시고 누전차단기나 안전기를 다시 작동하시기 바랍니다.
- 이때 누전일 경우에는 다시 정전이 되며 스위치와 플러그를 한 개씩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불량개소를 확인합니다.
- 일부 스위치나 플러그(또는 콘센트)가 불량일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나머지 양호한 스위치나 플러그(또는 콘센트)는 사용을 합니다.
- 수리를 위해 전기선을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.
- 한전에서는 정전이 되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출동 후 수리하고 있으므로 일부 몇 집만 정전일 경우에만 국번 없이 123으로 신고하십시오.
- 지나친 전화문의로 인하여 복구인력이 전화응대로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직접 전기를 고치기 위해 전주에 올라간다거나 전기설비를 만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.

야외에서 주의사항

- 비닐하우스, 간판, TV 안테나 등을 고치기 위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위에 전기선이 없는지 확인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.
- 주위에 전기선이 있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전에 연락, 안전조치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.

- 전기고장 수리 또는 어떠한 이유로도 전주에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전주에 올라가지 마십시오.
- 벼락이 칠 때는 나무나 전주 바로 밑에 머물지 말고 최소 1~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, 주위에 건물이 있으면 내부로 들어가 벼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
- 제방이나 언덕, 바위와 같은 높은 곳에는 벼락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동굴이나 낮은 지대로 피해야 합니다. 피할 곳이 없는 평지에서는 몸을 굽히고 다리를 오므리고 엎드려야 합니다.